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4년...정착 ‘아직’

시행 전 2020년 광주 2만7천790건
2022년 4만7천여건까지 폭증했다가
감소세 불구 올해 10월 2만600여건
“단속용 고정식 CCTV 등 추가 설치”

시행 4년여를 맞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광주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으나, 완전한 정착까진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동구 4천433건 ▲서구 4천669건 ▲남구 2천767건 ▲북구 5천203건 ▲광산구 1만718건 등 총 2만7천790건이었다.

이 시기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칠해진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만 이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정착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3일 오전광주 서구쌍촌동서광초학 인근 스쿨존에 8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된 모습. /주성학 기자

졌다. 그러다 2021년 10월2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됐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면서 본격 단속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사실상 단속 전면 확대 첫해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5개 자치구 모두 시행 전보다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동구 5천450건 ▲서구 5천980건 ▲남구 2천805건 ▲북구 9천783건 ▲광산구 2만3

천878건 등 총 4만7천896건이며, 이는 2020년보다 72.34% 늘어난 수치다.

2023년은 3만3천488건 (▲동구 5천355건 ▲서구 4천602건 ▲남구 2천542건 ▲북구 6천923건 ▲광산구 1만4천263건)으로 집계돼 3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서구(7천129건)는 전년 대비 부과 건수가 늘었으나, ▲동구 4천952건 ▲남구 1천366건 ▲북구 5천669건 ▲광산구 1만493건 등 나머지 자치구가 감소세를 이어가 지역 전체는 11.65% 줄어든 2만9천586건이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동구 3천483건 ▲서구 4천528건 ▲남구 1천253건 ▲북구 3천894건 ▲광산구 7천920건 등 총 2만643건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면금지 시행 전 현황보단 높고, 2022년 521곳이었던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이 지난해 402곳으로 줄어든 걸 감안하면 주정차 전면금지의 완전한 정착은 아직 멀어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서구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량 8대가 연이어 세워져 있었다.

이 탓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폭은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는데, 근처 어린이집 앞 도로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주민 김모(40대·여)씨는 “주변에 고등학교도 있어 많은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길인데, 도로 한켠이 늘 막혀 있어 오가는 차 사이로 위험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퇴근 후부터 출근 전까지 돌 곳이 없어 주차해 두는 건 그렇다지만, 그 외 시간대에도 세워져 있는 건 의식의 문제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건인할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전남경찰, 210억대 리딩방 사기 일당 ‘일망타진’

51명 송치...총책 등 10명은 구속

전국서 126건 이송받아 집중수사

엄청난 고수익을 약속하며 실제 가치보다 수백배 비싼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투자사기 일당이 일망타진됐다.

2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투자 리딩방 일당 51명 전원을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이 중 총책 A(40대)씨 등 10명은 구속,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00% 이상 수익을 홍보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464명에게 100원 정도의 주식을 3만원 상당에 판매해 총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 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은 홍보한 비상장 법인을 인수해서 확인 전화를 한 피해자들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홍보 담당을 정해 복수의 언론사에서 ‘상장 예정’이라는 보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사기 행각을 벌인 6개 법인 모두 상장 가능성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로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은 주요 피의자 검거 후 A씨를 특정, 검거했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됐고 전국에서 유사 사건 126건을 이송받아 나머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37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해 A씨 등이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씨 등이 다른 범죄 조직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며 여죄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빨강머리 앤 특별전’ 23일 오후 광주 동구 인문학당에서 열린 ‘빨강머리 앤 특별전’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빨강머리 앤 책을 읽고 있다.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앤 관련 도서와 굿즈가 다채롭게 진열돼 눈길을 끌었다. /김애리 기자

“전남대병원 4천200만원 손배 규탄”

노조, 명절 식권 미지급 현수막 게시

병원측 배상 청구...“상생 차원 철회”

지난 추석 명절 근무자에 식권을 지급하지 않은 전남대병원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23일 오전 전남대병

원 1층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은 명절 식권을 지급하고 4천200만원 손해배상 청구와 방해금지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대병원은 매년 명절마다 근무자에게 식권을 줬으나, 올해 추석에는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10월2일부터 12일간 병원 안팎에 식권미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병원 측은 이러한 현수막 게시와 올해 7월 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임금 인상 촉구 집회 등 총 8건을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13일 4천200만원을 노조에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병원이 손해배상을 무기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이날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철회는 노사 간 상생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식비 성격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주성학 기자

생후 4개월 아들 ‘방치·학대’ 친모 구속기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위독하게 만든 친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23일 여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중상해) 혐의를 받는 A(3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께 여주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씻기기 위해 아들을 욕조에 넣어둔 A씨는 T

V를 시청하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왔는데, 그 사이 피해 아동은 의식을 잃었다.

이후 A씨가 소방 당국에 신고하면서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날 오후 5시 기준 아직까지 스스로 호흡을 못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 아동의 상태에 따라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